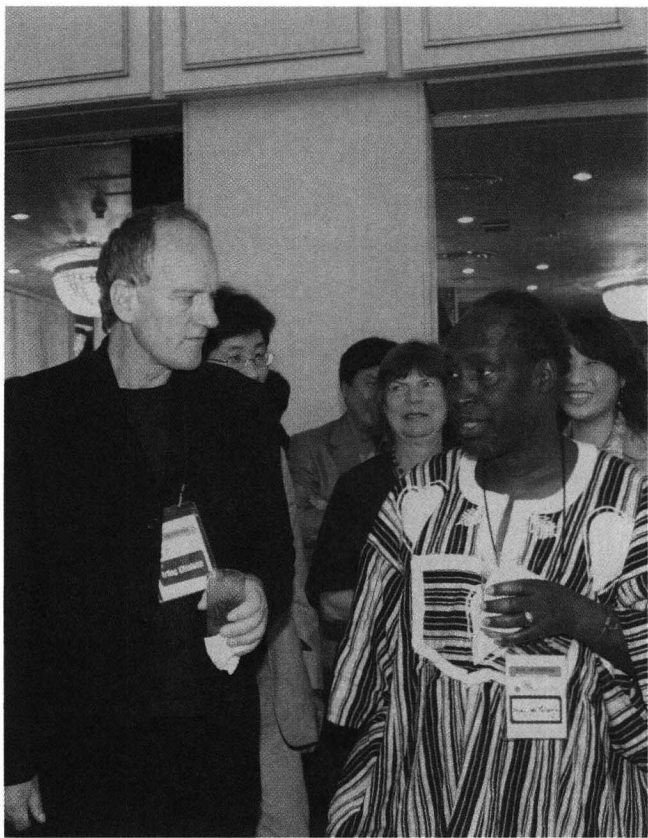


# ‘평화를 위한 글쓰기’ ... 세계 문학의 ‘지금’ 밝힌 프로젝트

## 세계 문호 20여 명 참석, 12개 세션으로 진행



케냐작가 응구기 와 시용오는 김지하 시인이 케냐 문단에 끼친 영향을 말하며 관심을 끌었다. 오른쪽 응구기와 시용오.

세계 대표 문호들과 한국 대표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평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문화비전을 도출한 제2회 서울국제문학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산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포럼에는 오에 겐자부로, 장 보드리야르, 르 클레지오, 오르한 파묵, 루이스 세풀베다, 베이 다오 등 세계문호 20여 명과 백낙청, 김우창, 오정희, 황석영, 김영하 등 한국작가

60여 명이 참석, 포럼 기간 내내 뉴스거리를 쏟아내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번 포럼은 ‘평화를 위한 글쓰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인간 가치와 정치변화’ ‘문학과 보편적 인간 가치’ ‘서구 근대성의 다양성’ ‘빈곤과 세계의 계층화’ 등 모두 12개 세션으로 나뉘어 펼쳐졌다. 메인 포럼과 작가 강연회 및 작품낭독회에서는 세계 문호들의 다양한 철학과 사상, 문학론이 펼쳐졌다.

### 현대철학과 사상, 문학론에 대한 의미 있는 모색

‘시물라시옹’ 이론으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현대사회 불확실성의 근원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정보과잉현상에 있다”, “우리 조상들이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강박관념에 시달렸다면, 우리 세대는 구별불능에 대한 부도덕한 공황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시물라시옹 세계의 위험을 재차 강조했다. 《내 이름은 빨강》으로 한국독자들에게 이름을 알린 터키작가 오르한 파묵은 “자신의 책을 읽어줄 독자의 머릿수를 생각하면 결코 좋은 소설을 쓸 수 없다”며 “작가의 국적이나 종교 같은 것들에 독자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설은 현대사회의 가장 보편적 종교”라는 자신의 문학론을 설파했다. 오르한 파묵은 이어 “중동 분쟁을 이슬람문명과 기독교문명의 충돌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덧붙였다.

케냐작가 응구기 와 시용오는 김지하 시인이 케냐 문단에 끼친 영향을 말하며 관심을 끌었다. 응구기 와 시용오는 “자신 역시 김지하 시인의 <오적>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필화 사건에 연루돼 수감생활을 할 때 썼던 소설 《침자가에 매달린 악마》는 <오적>에게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혜경궁 홍씨를 소재로 소설을 쓴 영국작가 마거릿 드래블은 “혜경

궁 홍씨의 《한중록》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견줄 만한 걸작”이라며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비극에 강렬히 흡입되어 그것을 소재로 한 작품 《레드 퀸》을 쓰게 되었다”며 한국 고전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 모옌과 오에 겐자부로, 역사 왜곡 인정할 수 없어

화젯거리도 연일 쏟아졌다. 《붉은 수수밭》으로 친숙한 중국작가 모옌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인정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모옌은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중국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고구려의 문화는 결국 한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옌은 이어 “고구려의 옛터인 중국 동북성의 문화는 한국적 요소가 짙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양국간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한국에 가면 한국의 학생들이 썩은 토마토를 던질 것이다”는 딸의 말을 꺼낸 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썩은 토마토는 고이즈미가 한국에 올 때까지 아껴두길 바란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한국전쟁 시 북측 중군기자로 활동했던 헝가리작가 티보 머레이는 당시 통역관으로 활동하며 자신과 친분을 쌓았던 월북시인 설정식 씨의 자녀들을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 전쟁, 테러, 환경파괴 경고...서울평화선언 채택

제2회 서울국제문학포럼은 판문점을 방문, 〈서울평화선언〉을 발표하며 분주한 3일간의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평화선언은



메인 포럼과 작가 강연회 및 작품낭독회에서는 세계 문호들의 다양한 철학과 사상, 문학론이 펼쳐졌다

전쟁과 테러, 생명과 환경파괴 등에 대한 경고를 담은 것으로 헝가리작가 티보 머레이가 작성했으며,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작가 81명 가운데 77명이 서명했다.

포럼을 주최한 대산문화재단 신창재 이사장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며 “폭력과 야만적인 것들의 반대좌표로 세계평화를 위한 열린 담론의 장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현기영 원장은 “이제는 영상매체 대신 문자와 문학이 발언해야 할 때”라며 “전쟁의 슬픔과 공포가 인간의 가슴 속에 절실하게 스며들게 하고, 그 슬픔과 공포를 평화운동 차원으로 조직해 내는 일을 문학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포럼의 의미를 전했다. **한민**

정리 박용두 기자 | 사진제공\_ 대산문화재단

### 서울국제문학포럼에 참석한 해외 문호들의 책 국내서 잇따라 출간

국내출판사들은 서울국제문학포럼에 발맞추어 한국을 방문한 해외 문호들의 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열린책들은 루이스 세풀레다의 《소외》와 《하라인》 두 권을 가장 먼저 선보였다. 《소외》는 잊혀진 것들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돋보이는 35편의 이야기를 묶은 작품이며 《하라인》은 현대인의 왜곡된 성문화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작품이다.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 《하라인》은 한국 개봉을 앞두고 있다.

민음사는 오르한 파묵의 신작 《눈》을 내놓으며 관심을 끌었다. 《눈》은 서로 다른 문명간의 갈등과 오늘날 터키가 안고 있는 종교적·정치적·사회적 딜레마를 문학적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한 작품. 전 세계 21개국에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은 《눈》은 현재 국내에서도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문학동네는 오르한 파묵의 출세작 《하안성》의 장정을 새롭게 선보였으며, 르 클레지오의 신작 《아프리카인》도 함께 선보였다. 《아프리카인》은 나이지리아에서 의사로 근무했던 르 클레지오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문학과지성사는 베이 다오의 대표시집 《한

밤의 기수》를 대산세계문학총서 40번째 권으로 내놓았다. 1972년부터 1998년까지 발표한 베이 다오의 시집 3권을 번역해 묶은 것으로, 시대에 철저히 저항했던 작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창비는 개리 스나이더가 지난 40년간 자연과 생명의 회복을 주제로 펼친 강연문과 기고문을 모은 《지구, 우주의 한미음》을 출간했으며, 웅진지식하우스는 오에 겐자부로의 국내절판본 《인생의 친척》을 12년 만에 다시 손질해 개정판으로 내놓았다.



정리 박용두 기자